

##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에서의 연령차와 성차를 확인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노화불안에 미치는 5요인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노인들보다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지니며 상실의 공포에서는 노인들이 대학생들 보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크게 경험하였고,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였지만 남녀 노인들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노화불안과 특성불안의 관계는 대학생들과 노인들에서 서로 상이하였고 노화불안과 성격특성들은 비록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양자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은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노인들은 높은 정서적 불안정과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높은 특성불안을 지닐 때 노화불안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노화불안의 어떤 측면들은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인 경향이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주요어: 노화불안, 특성불안, 5요인 성격특성

우리는 연령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늙어 보인다는 말보다는 ‘젊게 보인다’ 혹은 ‘더 젊어졌다’는 말을 듣기 좋아한다. 우리는 젊어지기 위해 각종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고 흰 머리카락을 염색하며

젊게 보이는 의복을 착용하는가 하면 성형수술을 시도함으로써 젊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젊음이나 젊은이와 연합된 특성들이 노인과 연합된 특성들을 보다 더 가치롭

---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게 생각되는 연령차별주의가 팽배해 있어(Allan & Johnson, 2009) 노인들에게는 연약하고, 까다롭고, 병들고, 매력없음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귀인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늙어갈수록 자신의 실제 연령을 말하기 싫어하고 사회로부터 노인 대우를 받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과 동일한 연령의 노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싫어하기까지 하므로 노화는 개인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Lynch(2000)는 이러한 노화불안(aging anxiety)을 늙어가는 데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나 공포 혹은 그 조합으로 정의하고 노화와 연합된 걱정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함으로써 노화불안을 노화에 대한 적응의 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도의 노화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중년 성인이나 노인들 중에도 노화와 연합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노년학 문헌(Salter & Salter, 1976)은 노화불안을 표현하는 네 가지 중요한 차원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개인의 한계 초월) 차원을 제안하였으나, Lasher와 Faulkender(1993)는 노화불안이 네 가지의 상이한 차원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 자신의 노화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타인들과의 외부적 접촉을 평정하는 ‘노인에 대한 공포’와 노화와 관련한 개인적, 내적 문제를 평정하는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 변화와 관련된 불안을 측정하는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및 노년기 동안의 상실이나 분리와 연합된 공포(우정, 건강, 능력,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인생에서의 의미)인 ‘상실의 공포’가 그것이다. 그들에게 노화불안은 다른 유형의 불안과 구별되는 구성개념일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이나 노화에 대한

태도와도 구별되는 구성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서 Lynch(2000) 같은 연구자는 노화불안을 6개의 지표 즉 신체건강, 미래에 대한 일반적 불안, 경제적 의존, 신체적 무능력, 사회적 상실의 접촉, 인지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서의 자율성 상실로 측정될 수 있는 단일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고, Kafer, Rakowski, Lachman과 Hickey (1980) 역시 노화불안을 단일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간의 노화는 중다차원적으로 일어나므로 노화불안 역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노화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한 연구자들은 연령에 따라 노화불안에서 차이가 있다고 제안하지만 아직까지 일관성 있는 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25세 이하의 연령집단과 25-34세 집단, 35-44세 집단, 45-54세 집단, 55-64세 집단, 65-74세 집단 및 74세 이상의 연령집단 남녀를 연구한 Lasher와 Faulkender(1993)는 연령집단에 따라 노화불안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년기 위기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 40세와 50세 사이에 노화불안이 절정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고(Kurger, 1994), 은퇴 직전인 50-64세의 사람들이 가장 큰 노화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Hiedemann, Suhomlinova & O'Rand, 1998)도 있다. 또한 어떤 연구자는 젊은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경험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Lynch, 2000). 그러나 노화불안은 젊은 연구대상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해당하므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린 연령집단에서는 노화에 대한 걱정이 불확실과 오해 때문에 매우 높거나 낮을 수 있을 것이고 노인집단에서는 성숙의 결과로 감소된

노화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별도 노화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큰 노화불안을 경험하는지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 예로서 Lasher와 Faulkender(1993)는 모든 연령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나 Lynch(2000)는 40세 이하의 연령에서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노화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대조적으로 McConatha, Schnell, Volkwein, Riley와 Leach(2003)는 여성들의 자기개념은 남성들보다 신체적 매력이나 젊음과 더 밀접하게 연합되므로 노화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명한 것은 여성과 남성들은 노화과정을 다르게 경험할 것이고(Gatz & Zarit, 1999), 노화와 관련된 불안이나 공포는 인생과정의 상이한 단계에서 남녀 간에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과 함께 노화불안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특성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노화불안을 경험하는가? Spielberger(1983)에 의하면, 특성불안이란 비교적 안정된 개인의 불안 성향으로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나 흥분 유발에 의한 긴장과 우려, 초조 및 걱정의 주관적 상태인 상태불안과는 구별된다. 지금까지 노화불안과 특성불안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없기는 하지만, 불안은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심리학적 구성개념 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걱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노화불안은 노인들에게는 현재의 걱정에 그리고 젊은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해당하므로 노화불안과 특성불안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Lasher와 Faulkender(1993)도 노화불안은 다른 형태의 불안과 구별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노화불안과 특성불

안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흥미롭게도 노화불안의 어떤 측면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그 예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를 연구한 Harris와 Dollinger(2003)는 노화불안과 정서적 불안정성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고 호감성과 성실성 및 외향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불안이 성격특성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개인의 노화불안은 단순히 연령이나 성별 혹은 다른 배경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성격특성은 성인기 동안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므로(Costa & McCrae, 1997) 성격특성과 노화불안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은 효과적이지 못한 대처기술이나 낮은 생활만족과 연합되고(장희숙, 2009; 장희숙, 김나연, 2011; McCrae & Costa, 1986)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들은 10년 전에 이미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McCrae & Costa, 1990) 정서적 불안정성을 포함한 5요인 성격특성들은 노화불안의 개인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Lasher와 Faulkender(1993)가 제안한 네 가지 차원의 노화불안에 기초하여 노화에 대한 오해나 불확실성을 갖기 쉬운 청년후기의 남녀 대학생들과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성인후기의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의 연령차와 성차를 확인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노화불안에 미

치는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규명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노화불안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연령이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혹은 교육정도와 같은 배경변인들을 주로 연구하거나(김욱, 2011; 김은하, 2007; Barrett & Robbins, 2008; Palacios, Torres & Mena, 2009), 노화에 대한 지식이나 노인에 대한 접촉(Allan & Johnson, 2009) 혹은 죽음불안과의 관계(Benton, Christopher & Walter, 2007)를 주로 연구하였으므로 이 연구는 개인 내적 변인인 성격특성과 특성불안을 포함함으로써 노화불안이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인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청년후기 남녀 대학생들과 65세 이상의 성인후기 노인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한 문항이라도 누락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최종분석 대상자는 남자 대학생 55명, 여자 대학생 60명, 남자 노인 44명 그리고 여자 노인 48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대학생 22.96세( $SD=2.694$ ), 여자 대학생 20.90세( $SD=1.638$ )였고 남자 노인 70.09세( $SD=3.709$ , 연령범위 66~78세) 그리고 여자 노인 70.78세( $SD=3.955$ , 연령범위 65~79세)였다.

독신인 여자 노인 1명만을 제외하고 모든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 노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 28.3%, 중학교 졸업 23.9%, 고등학교 졸업 26.1%, 대학교 졸업 21.7%였고, 여자 노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 59%, 중학교 졸업 24.5%, 고등학교 졸업 10.2% 그리고 대

학교 졸업 6.1%였다. 남자 노인의 50%는 농업이나 자영업, 전문직 등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자 노인들의 83.7%는 주부이고 10.2%는 농업이나 자영업 등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자 노인의 47.8%와 여자 노인의 73.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나 종교가 있는 대학생들은 남녀 각각 38.2%와 33.3%였다. 이와 함께 남자 노인의 67.4%와 여자 노인의 51%는 건강이 매우 좋거나 약간 좋다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대학생들의 경우 각각 92.7%와 88.3%였다.

대학생들의 설문은 심리학 개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 교수에 의해 집단으로 실시되었으나 노인들의 설문은 D시에 있는 가장 큰 세 개의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구자에 의해 일대일의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실시를 위해 대학생들은 약 20분 그리고 노인들은 약 50~60분이 소요되었으며 노인들에 따라 자신의 가족사나 여러 가지 인생이야기 혹은 경제문제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여 면접이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였다. 대학생의 설문은 2011년 9월 하순에 약 1주일 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면접은 2011년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10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 측정도구

#### 노화불안척도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노화불안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네 개의 하위차원 즉 노인에 대한 공포(문항 예, 나는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심리적 걱정(문항 예, 나는 내 노년기 동안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할까 두렵다),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문항 예,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나이와 함께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는 것은 나를 괴롭힌다) 및 상실의 공포(문항 예, 내가 늙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안하다)를 포함한다. 이 척도는 각 차원당 5문항씩 전체 20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더 높은 노화불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측정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노인에 대한 공포 .873, 심리적 걱정 .848,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824 그리고 상실의 공포 .820이었다.

### 특성불안 척도

Spielberger(1983)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이장호와 전겸구(1996)가 한국어판으로 제작한 상태-특성불안 검사 중 특성불안 검사만이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20문항(문항 예: 나는 걱정이 많고 피로감을 느낀다)을 포함하고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더 높은 특성불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측정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6이었다.

### 5요인 성격특성검사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osta와 McCrae(1985)가 개발한 NEO 성격검사(NEO-Personality Inventory: NEO-PI) 1990년도 판에 기초하여 제작된, 188문항의 노동부 검사(2000)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하여 외향성 6문항(문항 예: 나는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다), 성실성 5문항(문항 예: 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5문항(문항 예: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다), 호감성 5문항(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7문항(문항 예: 나는 쉽게 불안정해진다)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그러한 경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측정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51, 성실성 .848, 경험에 대한 개방성 .884, 호감성 .820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831이었다.

표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의 네 가지 하위차원의 사례수와 평균(표준편차)

연령집단	성별	N	노인에 대한 공포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
대학생	남	55	16.89(3.195)	12.33(3.543)	11.76(4.114)	12.36(3.051)
	여	60	16.88(3.791)	12.82(3.402)	14.78(3.594)	14.95(3.693)
	전체	115	16.89(3.503)	12.58(3.464)	13.34(4.123)	13.71(3.627)
노인	남	44	14.74(3.156)	12.80(3.062)	12.09(2.851)	15.82(4.059)
	여	48	13.54(3.142)	13.42(3.363)	13.77(3.230)	16.52(3.804)
	전체	92	14.12(3.189)	13.12(3.220)	12.97(3.153)	16.18(3.922)
전체	남	99	15.94(3.338)	12.54(3.330)	11.91(3.594)	13.90(3.916)
	여	108	15.40(3.879)	13.08(3.383)	14.33(3.459)	15.65(3.807)
	전체	207	15.66(3.631)	12.82(3.361)	13.17(3.719)	14.81(3.948)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공포,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및 상실의 공포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노화불안		F값
노인에 대한 공포	연령집단	33.958***
	성별	1.670
	연령집단X성별	1.629
심리적 걱정	연령집단	1.287
	성별	1.391
	연령집단X성별	.020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연령집단	.483
	성별	22.725***
	연령집단X성별	1.847
상실의 공포	연령집단	24.251***
	성별	10.388***
	연령집단X성별	4.407*

\*p<.05, \*\*p<.01, \*\*\*p<.001이하 동일함

## 결 과

###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에서의 차이

노화불안에서의 연령차와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대학생, 노인)과 성별(남여)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네 가지 차원의 노화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노화불안의 네 가지 차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2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화불안 중 노인에 대한 공포에서는 연령집단의 주효과 ( $F(1,203)=33.958, p<.001$ )만 유의하여 대학생들이 노인들보다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리적 걱정에서는 연령집단의 주효과와 성별의 주효과 및 연령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에서는 성별의 주효과 ( $F(1,203)=22.725, p<.001$ )만 유의하여, 여성들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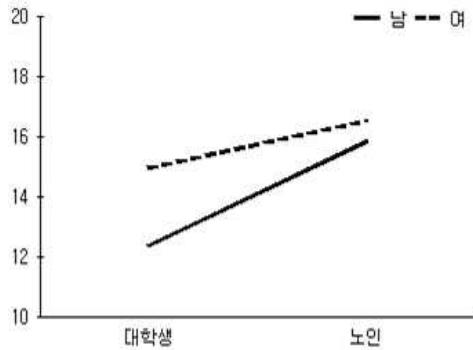


그림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실의 공포에서의 상호작용 효과

성들보다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상실의 공포에서는 연령집단의 주효과( $F(1,203)=24.251, p<.001$ )와 성별의 주효과( $F(1,203)=10.388, p<.001$ ) 및 연령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1,203)=4.407, p<.05$ )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노인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자 노인들이었지만 남녀 노인들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유의하게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과 특성불안의 상관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표 3과 같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의 네 가지 하위차원과 특성불안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화불안의 네 가지

표 3.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의 4가지 하위차원과 특성불안의 상관

		노인에 대한 공포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
특성불안	대학생				
	남 .116	.215	.228	.121	
	여 .004	.192	.122	.140	
노인		남 .446**	.483***	.467***	.689***
		여 .281	.494***	.478***	.564***

하위차원들은 남녀 대학생에서는 특성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노인들에서는 여자 노인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와 특성불안의 상관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자 노인의 노인에 대한 공포( $r=.446, p<.01$ )와 남녀 노인들의 심리적 걱정(남:  $r=.483, p<.001$ , 여:  $r=.494, p<.001$ ),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남:  $r=.467, p<.001$ , 여:  $r=.478, p<.001$ ) 및 상실의 공포(남:  $r=.689, p<.001$ , 여:  $r=.564, p<.001$ )가 클수록 더 높은 특성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

남녀 대학생들과 노인들에서 노화불안의 네 가

지 하위차원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4는 남녀 대학생들의 결과이고 표 5는 노인들의 결과이다.

대학생의 노화불안 중 노인에 대한 공포는 표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대학생의 경우 5요인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 $r=.291, p<.05$ )을 나타내었으나 여자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와 외향성( $r=-.285, p<.05$ ), 성실성 ( $r=-.254, p<.05$ ),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 $r=-.303, p<.05$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자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큰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반면, 여자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 4. 남녀 대학생의 노화불안의 4가지 하위차원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

5요인 성격특성	성별	노인에 대한 공포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
외향성	남	-.040	-.282*	-.227	-.216
	여	-.285*	-.157	-.060	-.163
성실성	남	-.188	-.321*	-.101	-.299*
	여	-.254*	-.329**	-.198	-.113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남	-.091	-.187	-.256	-.010
	여	-.303*	-.310*	-.231	.032
호감성	남	-.143	-.173	-.174	-.274*
	여	-.223	-.194	-.088	-.053
정서적 불안정성	남	.291*	.280*	.106	.412**
	여	.099	.382**	.176	.164

표 5 남녀 노인의 노화불안의 4가지 하위차원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

5요인 성격특성	성별	노인에 대한 공포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
외향성	남	-.397**	-.266	-.240	-.233
	여	-.362*	-.323*	-.272	-.262
성실성	남	-.231	-.474***	-.369*	-.407**
	여	-.342*	-.503***	-.313*	-.170
경험에 대한	남	-.267	-.559***	-.357*	-.312*
개방성	여	-.188	-.534***	-.377**	-.228
호감성	남	-.440**	-.460**	-.360*	-.347*
	여	-.076	-.007	.024	-.117
정서적 불안정성	남	.475***	.462**	.455**	.453**
	여	.260	.385**	.465***	.442**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걱정은 외향성( $r=-.282, p<.05$ ) 및 성실성( $r=-.321, p<.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280, p<.05$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여자 대학생의 심리적 걱정은 성실성( $r=-.329, p<.01$ )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 $r=-.310, p<.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382, p<.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자 대학생들은 심리적 걱정이 클수록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지니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며, 여자 대학생들은 심리적 걱정이 클수록 더 낮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닌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5요인 성격특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고 상실의 공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성실성( $r=-.299, p<.05$ ) 및 호감성( $r=-.274, p<.05$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412, p<.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여자 대학생들은 어떤 성격특성 요인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노화불안 중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은 남녀 대학생들의 5요인 성격특성들과 관련이 없었고 남

자 대학생들은 상실의 공포가 클수록 더 낮은 성실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었으나 여자 대학생들의 상실의 공포는 5요인 성격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 5에 의하면, 남자 노인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는 외향성( $r=-.397, p<.01$ ) 및 호감성( $r=-.440, p<.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475,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여자 노인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는 외향성( $r=-.362, p<.05$ ) 및 성실성( $r=-.342, p<.05$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남자 노인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낮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여자 노인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남자 노인들의 심리적 걱정은 성실성( $r=-.474, p<.001$ )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r=-.559, p<.001$ ) 및 호감성( $r=-.460, p<.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462, p<.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여자 노인들의 심리적 걱정은 외향성( $r=-.323, p<.05$ )과 성실성( $r=-.503,$

$p<.001$ )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 $r=-.534, p<.001$ )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385, p<.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남자 노인들은 심리적 걱정이 클수록 더 낮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호감성을 지니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며, 여자 노인들은 심리적 걱정이 클수록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남자 노인들의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은 성실성( $r=-.369, p<.05$ )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r=-.357, p<.05$ ), 호감성( $r=-.360, p<.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455, p<.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여자 노인들의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은 성실성( $r=-.313, p<.05$ )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 $r=-.377, p<.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465, p<.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남자 노인들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이 클수록 더 낮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호감성을 지니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며, 여자 노인들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이 클수록 더 낮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남자 노인들의 상실의 공포는 성실성( $r=-.407, p<.01$ )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r=-.312, p<.05$ ) 및 호감성( $r=-.347, p<.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r=.453, p<.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여자 노인들의 상실의 공포는 정서적 불안정성( $r=.442, p<.01$ )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자 노인들은 상실의 공포가 클수록 더 낮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호감성을 지니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며, 여자 노

인들은 상실의 공포가 클수록 더 큰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 4. 노화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노화불안에 미치는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화불안의 두 가지 차원 즉 노인에 대한 공포와 상실의 공포차원에서 이미 연령차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에서 대학생들과 노인들은 서로 다른 패턴을 나타내었으므로 대학생과 노인들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노화불안의 두 가지 하위차원에서 이미 성차가 확인되었으므로 남성은 0 그리고 여성은 1로 더미 코딩한 후, 1단계에서는 먼저 성별을 투입하였다. 특성불안은 대학생들의 노화불안과는 관련이 없었으므로 2단계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을 투입하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특성불안을 투입하여 표 6 및 표 7과 같이 각각의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공포 차원에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각각  $F(1,113)=2.310, p<.05, F(6,108)=2.342, p<.05, F(7,107)=2.442, p<.05$ 로서 유의하였고, 심리적 걱정 차원에서의 각 단계별 회귀모형도 각각  $F(1,113)=2.571, p<.05, F(6,108)=4.762, p<.001, F(7,107)=4.163, p<.001$ 로서 유의하였다.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도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F(1,113)=17.641, p<.001, F(6,108)=4.764, p<.001, F(7,107)=4.069, p<.01$ 로서 유의하였고 상실의 공포 차원 역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F(1,113)=16.588, p<.001, F(6,108)=4.878, p<.001, F(7,107)=4.447, p<.001$ 로서 유의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

표 6.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단계	독립변인	B	SE	Beta	t	Tolerance	VIF	$\Delta R^2$
노인에 대한 공포	성별	-.008	.657	-.001	-.012	1.000	1.000	.001
	외향성	.163	.126	.123	1.298	.906	1.104	
	성실성	-.080	.099	-.086	-.812	.726	1.377	
	경험에 대한 개방성	-.150	.082	-.175	-2.010*	.891	1.123	.115
	호감성	-.088	.117	-.077	-.751	.773	1.293	
	정서적 불안정성	.089	.073	.125	1.222	.786	1.272	
심리적 걱정	특성불안	.003	.120	.003	.025	.821	1.218	.001
	성별	.489	.648	.071	.755	1.000	1.000	.005
	외향성	-.058	.118	-.044	-.493	.906	1.104	
	성실성	-.189	.092	-.206	-2.048*	.726	1.377	
	경험에 대한 개방성	-.182	.077	-.215	-2.368*	.891	1.123	.204
	호감성	.034	.109	.031	.315	.773	1.293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정서적 불안정성	.207	.068	.295	3.059**	.786	1.272	
	특성불안	-.091	.112	-.077	-.810	.821	1.218	.005
	성별	3.020	.719	.367	4.200***	1.000	1.000	.135
	외향성	.081	.140	.052	.580	.906	1.104	
	성실성	-.027	.110	-.025	-.246	.726	1.377	
	경험에 대한 개방성	-.220	.091	-.218	-2.407*	.891	1.123	.074
상실의 공포	호감성	-.040	.130	-.030	-.311	.773	1.293	
	정서적 불안정성	.091	.081	.109	1.128	.786	1.272	
	특성불안	.048	.134	.034	.359	.821	1.218	.001
	성별	2.586	.635	.358	4.073***	1.000	1.000	.128
	외향성	-.099	.123	-.073	-.808	.906	1.104	
	성실성	-.121	.096	-.125	-1.253	.726	1.377	
기타	경험에 대한 개방성	.002	.080	.002	.022	.891	1.123	.085
	호감성	-.013	.114	-.011	-.116	.773	1.293	
	정서적 불안정성	.176	.071	.240	2.489*	.786	1.272	
	특성불안	.151	.117	.122	.1.296	.821	1.218	.012

한 공포에서는 성격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 $\beta = -.175, p < .05$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 전체 변량의 11.7%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노인에 대한 공포 변량의 0.1%를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성격특성은 11.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 역시 0.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 때 대학생들은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심리적 걱정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 중 성실성( $\beta = -.206, p < .05$ )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beta = -.215, p < .05$ ) 및 정서적 불안정성( $\beta = .295, p < .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심리적 걱정 전체 변량의 21.4%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심리적 걱정 변량의 0.5%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성격특성은 20.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 또한 0.5%를 추가적으로

표 7.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B	SE	Beta	t	Tolerance	VIF	$\Delta R^2$
노인에 대한 공포	성별	-1.208	.657	-.190	-1.839	1.000	1.000	.036
	외향성	-.175	.078	-.239	-2.295*	.804	1.245	
	성실성	-.053	.093	-.071	-.567	.558	1.794	
	경험에 대한 개방성	-.033	.096	-.042	-.346	.582	1.718	.221
	호감성	-.114	.092	-.130	-1.247	.809	1.236	
	정서적 불안정성	.133	.068	.206	1.951*	.784	1.275	
심리적 걱정	특성불안	-.002	.056	-.006	-.035	.353	2.836	.001
	성별	.621	.673	.097	.924	1.000	1.000	.009
	외향성	-.058	.068	-.078	-.848	.804	1.245	
	성실성	-.125	.083	-.166	-1.505	.558	1.794	
	경험에 대한 개방성	-.325	.086	-.410	-3.789***	.582	1.718	.412
	호감성	.041	.082	.047	.507	.809	1.236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정서적 불안정성	.168	.061	.257	2.754**	.784	1.275	
	특성불안	.099	.048	.280	2.049*	.353	2.836	.028
	성별	1.680	.638	.268	2.634**	1.000	1.000	.072
	외향성	-.038	.071	-.053	-.536	.804	1.245	
	성실성	-.035	.087	-.048	-.407	.558	1.794	
	경험에 대한 개방성	-.203	.089	-.262	-2.272*	.582	1.718	.271
상실의 공포	호감성	.031	.085	.035	.361	.809	1.236	
	정서적 불안정성	.232	.064	.363	3.657***	.784	1.275	
	특성불안	.080	.051	.232	1.578	.353	2.836	.019
	성별	.703	.820	.090	.857	1.000	1.000	.008
	외향성	-.049	.094	-.055	-.523	.804	1.245	
	성실성	.003	.115	.003	.024	.558	1.794	
상실의 공포	경험에 대한 개방성	-.144	.119	-.149	-1.214	.582	1.718	.243
	호감성	-.115	.113	-.106	-1.015	.809	1.236	
	정서적 불안정성	.300	.084	.377	3.561***	.784	1.275	
	특성불안	.285	.061	.661	4.667***	.353	2.836	.154

설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걱정 차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서, 결국 대학생들은 낮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면서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큰 심리적 걱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에서는 성별( $\beta=.367$ ,  $p<.001$ )과 5요인 성격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 $\beta=-.218$ ,  $p<.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변량의 13.5%를 설명하였고, 성격특성은 7.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은 0.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가지 변인 중 성별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서, 결국 여성이고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 때 대학생들은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상실의 공포에서는 성별( $\beta=.358, p<.001$ )과 정서적 불안정성( $\beta=.240, p<.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상실의 공포 전체 변량의 22.5%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상실의 공포 변량의 12.8%를 설명하였고, 성격특성은 8.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은 1.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가지 변인 중 성별은 상실의 공포 차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서, 결국 여성이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대학생들은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노인들의 노화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노인에 대한 공포 차원에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각각  $F(1,90)=3.481, p<.05, F(6,85)=4.918, p<.001, F(7,84)=4.166, p<.001$ 로서 유의하였고, 심리적 걱정 차원에서의 각 단계별 회귀모형도 각각  $F(1,90)=3.853, p<.05, F(6,85)=10.297, p<.001, F(7,84)=9.757, p<.001$ 로서 유의하였다.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 또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F(1,90)=6.940, p<.001, F(6,85)=7.393, p<.001, F(7,84)=6.804, p<.001$ 로서 유의하였고 상실의 공포차원 역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F(1,90)=3.835, p<.05, F(6,85)=4.749, p<.001, F(7,84)=8.177, p<.001$ 로서 유의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 $\beta=-.239, p<.05$ )과 정서적 불안정성( $\beta=.206, p<.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 전체 변량의 25.8%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노인에 대한 공포 변량의 3.6%를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성격특성은 22.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은 0.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가지 변

인 중 노인에 대한 공포 차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외향성이었다. 그러므로 낮은 외향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노인들은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심리적 걱정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 $\beta=-.410, p<.001$ )과 정서적 불안정성( $\beta=.257, p<.01$ ) 그리고 특성 불안( $\beta=.280, p<.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심리적 걱정 전체 변량의 44.9%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심리적 걱정 변량의 0.9%를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성격특성은 41.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 역시 2.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세 가지 변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심리적 걱정 차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서, 결국 여성이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높은 특성불안을 지닐 때 노인들은 더 큰 심리적 걱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에서는 성별( $\beta=.268, p<.01$ )과 성격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 $\beta=-.262, p<.05$ )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beta=.363,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전체 변량의 36.2%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변량의 7.2%를 설명하였고, 성격특성은 27.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 역시 1.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가지 변인 중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정서적 불안정성이었다. 따라서 여성이고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노인들은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상실의 공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 $\beta=.377$ ,  $p<.001$ )과 특성불안( $\beta=.661$ ,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상실의 공포 전체 변량의 40.5%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상실의 공포 변량의 0.8%를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성격특성은 24.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성불안은 15.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세 가지 변인 중 상실의 공포 차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특성불안이었다. 따라서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높은 특성불안을 지닐 때 노인들은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 논 의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남: 55명, 여: 60명)과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남: 44명, 여: 48명)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적응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노화불안의 연령차와 성차를 확인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노화불안에 미치는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규명하였다. 네 가지 차원(노인에 대한 공포,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으로 구성된 노화불안 척도와 특성불안 척도 및 5요인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대학생들은 노인들보다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노인들은 대학생들보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였으며, 그 중 여자 노인들이 가장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였지만 남자 노인들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노화불안의 네 가지 차원들은 특성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남자 노인들은 노인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그리고 남녀 노인 모두 심리적 걱정과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및 상실의 공포가 클수록 더 큰 특성불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남녀 대학생과 노인들 모두, 비록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노화불안이 클수록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호감성을 지니고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 때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고, 낮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높은 심리적 걱정을 경험하며, 여성이고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 때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그리고 여성이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은 낮은 외향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고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높은 특성불안을 지닐 때 더 큰 심리적 걱정을 경험하며, 여성이고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노인들은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그리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높은 특성불안을 지닐 때 노인들은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4가지 차원의 노화불안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심리적 걱정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과 상실의 공포에서는 성별이었으나 노인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에서는 외향성, 심리적 걱정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 그리고 상실의 공포에서는 특성불안이었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노인들보다 노인에 대해 더 큰 공포를 지니고 노인들은 대학생들보다 더 큰 상실의 공포를 나타내어 대학생과 노인 모두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에 따라 높은 노화불안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노화불안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Lasher와 Faulkender(1993)의 연구나 젊은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경험하고 이후 감소한다고 주장한 Lynch(2000)의 연구 및 연령증가와 함께 각 개인은 점점 더 성숙해지므로 노년기에 이르면 노화불안은 감소할 것이라는 Mirowsky와 Ross(1992)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Kalavar(2001)나 Rupp와 Vondanovich 및 Crede(2005)의 주장대로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할 결과일 것이고, 노인들이 경험하는 더 큰 상실의 공포는 노년기 동안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리나 상실 혹은 이별과 연합된 결과일 것이다. 노화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표상하므로 노화에 기인한 불안은 대학생들은 물론 노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보편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년후기 대학생과 성인후기의 노인들만을 횡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노화불안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이 중년기에 절정을 이룬다는 선행연구들(Kurger, 1994; Hiedemann 등, 1998)에 기초하여 중년의 성인들을 포함하는 횡단연구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종단연구를 통해 노화불안의 연령에 따른 변화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과 노인 모두에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져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큰 노화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Lasher와 Faulkender(1993)나 40세 이하의 연령에서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노화불안을 경험한다는 Lynch(2000)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문제는 Lasher와 Faulkender가 중다차원적 노화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화불안 척도의 전체 점수만으로 성차를 비교하였고, Lynch같은 연구자는 노화불안을 단일차원적 구성 개념으로 가정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격특성과 특성불안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도 성별은 대학생의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과 상실의 공포에 대해 각각 13.5%와 12.8%를 설명하여 가장 큰 설명량을 갖는 변인이었고 노인들에서도 성별은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변량의 7.2%를 설명하여 성별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이 분명하였다. 실제로 여성들의 자기개념은 신체적 매력이나 젊은 외모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McConatha 등, 2003)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노화에 기인한 신체 외모의 변화를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불안을 보인다는 연구(Deapaola, Griffin, Young & Neimeyer, 2003; Russac, Gotlife, Reece & Spottswood, 2007)와 함께 노화불안은 죽음불안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Benton, Christopher & Wlater, 2007)결과들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상실의 공포를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노화불안은 남녀 모두에서 특성불안과 관련이 없었고 특성불안은 노화불안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개인의 안정된 불안성향에 해당하는 특성불안은 현재의 걱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해당하는 노화불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타당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노화불안은 현재의 걱정에 초점을 맞추므로 여자 노인들의 노인에 대한 공포 차원만을 제외하고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불안은 노화불안의 모든 하위차원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노인들은 더 큰 심리적 걱정과 상실의 공포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었다. 따라서 노화불안과 특성불안의 관련성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정과 일치하였을 뿐 아니라 Lasher와 Faulkender(1993)의 주장대로 노화불안은 특성불안과는 구별되는 구성개념임이 분명하였다.

연구자의 예상대로 대학생과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불안은 개인의 성격특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고,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노화불안에 대해 높은 설명량을 갖는 성격특성이었다. 이 연구에서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 때 대학생들은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경험하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큰 심리적 걱정과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어 노화불안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Harris와 Dollinger(2003)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실제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호기심과 적극적 탐색 및 편견없는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노화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노화라는 새로운 경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낮은 노화불안을 경험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적 불안정성 또한 노화불안의 네 가지 차원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다르게 Harris와 Dollinger(2003)의 연구와 일치하

였다. 정서적 불안성성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의 경향성에 해당하므로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을 때 노인들은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 걱정,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 및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고, 대학생들조차도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큰 심리적 걱정과 상실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서적 불안정성은 노화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격특성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화불안을 중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가정하고 Lasher와 Faulkender(1993)의 다차원 노화불안척도를 사용하여 노화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연구하였지만, 노화불안을 단일차원적으로 측정한 연구들도 있으므로(Kafer, Rakowski, Lachman & Hickey, 1980; Lynch, 2000)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먼저 노화불안이 단일차원적 구성개념인지 아니면 중다차원적 구성개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노화에 대해 강한 불확실성을 지니는 대학생과 이미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노화불안을 비교하고 노화불안과 특성불안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노화불안에 미치는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노화불안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배경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어떤 측면들은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연구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적응을 촉진시키고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 및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김옥 (2011).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26, 27-56.
- 김은하 (2007). 중년 이후 여성의 노화에 대한 불안 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192-202.
- 노동부 (2000). 직업선후도 검사 실시요강: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장희숙 (2009). 두 자녀 가정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1-14.
- 장희숙, 김나연 (2011). 노년기 고독과 성격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19.
-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Allan, L. J., & Johnson, J. A. (2009).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 1-14.
- Barrett, A. E., & Robbins, C. (2008). The Multiple sources of women's aging anxiet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0(1), 32-65.
- Benton, J. P., Christopher, A. N., & Walter, M. I. (2007). Death anxiety as a function of aging anxiety. *Death Studies*, 31, 337-350.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Personality in adulthood: A six year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s and spouse ratings on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53-86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7). Longitudinal stability of adult personality. In R. Hogan, J. A. Johnson, & S. R.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269-290). Orlando, FL: Academic Press.
- DePaola, S. J., Griffin, M., Young, J. R., & Neimeyer, R. S. (2003).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Death Studies*, 27, 335-354.
- Gatz, M., Zarit, S. H. (1999). A good old age: Paradox or possibility. in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ed. by Bengston and Schaeie). New York: Springer.
- Harris, L. A., & Dollinger, S. C.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87-194.
- Hiedemann, B., Suhomlinova, O., & O'Rand, A. M. (1998).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status, and empty nest in middle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219-31.
- Kafer, R. A., Rakowski, W., Lachman, M., & Hickey, T. (1980). Aging Opinion Survey: A report on instrum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 319-33.
- Kalavar, J. M. (2001). Examining ageism: Do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differ? *Educational Gerontology*, 27, 506-513.
- Kurger, A. (1994). The midlife transition: Crisis or chimera? *Psychological Reports*, 75,

- 1299–1305.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 247–259.
- Lynch, S. M.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McConatha, J. T., Schnell, F., Volkwein, K., Riley, L., & Leach, E. (2003). Attitudes toward ag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3), 203–215.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5.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Press.
- Mirowsky, J., & Ross, C. E.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187–205.
- Palacios, C. S., Torres, M. V., & Mena, M. J. B. (2009). Negative aging stereotypes and their relation with psychosocial variables in the elderly population.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8, 385–390.
- Rupp, E. E., Vondanovich, S. J., & Crede, M. (2005).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ageism: Construct validity and group differ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 335–362.
- Russac, R. J., Gotliff, C., Reece, M., & Spottswood, D. (2007). Death anxiety across the adult years: An examination of age and gender effects. *Death Studies*, 31, 549–561.
- Salter, C. A., & Salter, C. (1976). Attitudes toward aging and behaviors toward the elderly among young people as a function of death anxiety. *Gerontologist*, 16(3), 232–236.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Form 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1차 원고 접수: 2012. 1. 7.

수정 원고 접수: 2012. 2. 9.

최종 게재 결정: 2012. 2. 10.

# Relationships between Aging Anxiety, Trait Anxiety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aging anxiety and in relationships between aging and, trait anxiety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according to age and sex and relative effects of 5-factor personality traits on aging anxiety with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Results revealed college students had higher fear of old people than older adults, female had higher fear of physical appearance than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had highest fear of loss followed male older ones, female and male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indicated different patterns in relationships between aging and traits anxiety. Also 4 dimensions of aging anxiety were differentially related to personality traits in all participants. On the whole college students' aging anxiety tended to increase as having lower openness to experience and higher neuroticism, while older adults' aging anxiety to increase as having higher neuroticism, lower openness to experience and higher trait anxiety.

*key words:* aging anxiety; traits anxiety; 5-factor personality traits